



■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도내 아르바이트생 600명 설문조사

“근로계약서 미작성·부당 경험 비밀비재”

10명중 1명 최저임금 ↓… 4대보험 가입 38% 수준

제주지역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아르바이트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8%가 최저임금(8350원)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또 44.8%는 생활임금(9700원) 미

만의 시급을, 나머지 45.3%는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6%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1부씩 나눠 가져야 한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최저임금 위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도출됐다.

또 이번 조사에서 아르바이트생 600명 중 279명이 일을 하면서 부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가장 많은 67.7%(189명)가 ‘그냥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다. 이어 ‘스스로 대응’ 51명(18.3%), ‘지인 도움 요청’ 18명(6.5%), ‘일을 그만둬’ 16명(5.7%) 순이었다. 제도와

민간기관을 통해 부당 대우에 대응한 경우는 각각 3명(1.1%)과 2명(0.7%)에 불과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37.8%가 가입돼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가입된 경우는 36.6%에 그쳤으며 나머지 25.5%는 모른다고 답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방안으로 맞춤형 노동법률 교육사업과 조례개정을 통한 위반점 검, 노동권의 부당대우 신고센터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상민기자

“대입 정시확대 중단하라” 전국교육감협 촉구 성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를 향해 대입 정시 확대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4일 제69회 정기총회 이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시 비율을 줄이고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의 공약”이라면서 “정시 선발 비율을 늘리는 것은 교육의 국가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맞춰 토론수업 등으로 깨어난 교실을 다시 잠자는 교실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정답만 찾게 하는 문제풀이가 아닌 성장이 있는 배움을 돌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헌책의 가치 나뉘요” 5일 제주대학교 신관 앞에서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가 헌책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2019 두더지 북 페어’에서 학생들이 책을 고르고 있다.

이상국기자

먹튀 여행사 피해 속출… 고소 잇따라

경찰 “피해 규모 파악중”

여행상품 예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제주도내 모 여행사 대표가 입건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와 관련 업체들도 추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사기 혐의로 입건된 모 여행사 대표 A(42)씨 사건과 관련해 총 9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미수금을 돌려받지 못한 관련 업체의 경우 형법상 사기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내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항공권과 숙

소, 렌터카 등의 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해 고객들에게 예약금을 받은 뒤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김씨가 가로챈 금액은 최소 1억원을 넘어섰고, 피해자만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행사 운영난으로 인해 여행상품 예약금으로 숙박·렌터카 등 거래처 미수금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여행사 계좌를 분석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불법조업 中어선 5척 나포

이틀새 제주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 5척이 잇따라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3일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 단속을 벌인 결과 중국 자망어선 A호(97t·승선원 16명) 등 5척을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은 어획물을 늘리기 위해 규격(50mm)보다 촘촘한 41.9mm의 그물을 이용해 조업에 나섰고, 조업일지에 어획물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된 5척 가운데 4척이 3억6000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함에 따라 석방했다.

송은범기자

“4·3은 폭동” 발언 교수 국제대 이사 내정 논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대표적인 4·3 펍뮐론자”

제주4·3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제주국제대학교 이사로 내정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제주국제대의 학교법인인 동원교육학원이 이명희 교수를 이사로 내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 교수는 평소 4·3폭동을 강조해 온 대표적인 4·3 펍뮐론자”라고 내정 철회 촉구 이유를 밝혔다.

4·3기념사업위원회는 “2013년 6월 5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도 ‘제주4·3은 폭동이며, 좀 문제가

되는 것은 4·3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좀 학살당한 일’이라고 말하는 등 민간인 피해를 축소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을 한 대표적인 뉴라이트계열 인사”라며 “어떻게 동원교육학원 측이 이런 반역사적 인식을 가진 인물을 학문의 전당에 발 붙이게 할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4·3기념사업위원회는 “동원교육학원은 이 교수의 이사 내정을 철회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도민적 철회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동원교육학원은 지난 1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이 교수를 비롯한 3명을 이사로 선임했다. 이 교수는 현재 내정자 신분으로 제주도의 승인을 얻어야 제주국제대에서 이사로 일할 수 있다.

이상민기자

복어 독 중독사고 식당주인 혐의 추가

경찰 “업무상과실치상 적용”

조리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복어를 요리해 손님에게 제공했다가 중독 사고를 일으킨 식당 주인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0일 오후 7시 쯤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복어요리를 먹고 중독 증상을 보인 손님의 혈액에서 복어 독인 테트로도독신이 검출됐다는 정밀 감정결과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런 감정결과를 토대로 당시 복어를 조리한 식당 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포함해 2개로 늘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자를 둔 업자만 복어 요리를 판매할 수 있다.

A씨는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한 이유는 A씨가 복어 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요리를 제공한 바라며 손님들이 병원 치료를 받은 등 A씨의 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국과수 정밀 감정결과에서 복어 독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힘들었다. A씨가 조리 당시 복어 독을 제대로 제거했다는 추론이 가능해 A씨의 과실을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A씨에게 복어 요리를 맡긴 손님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당시 복어 독 중독 증세를 보인 손님 7명 중 4명은 현지 경찰관으로,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직접 복어를 가져가 요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복어를 먹은 경찰관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금융사기 30대 점유2년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최모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월 4일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한 해외 사이트의 결제시스템 허점을 파고들어 모 은행으로부터 환급금 4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신사복, 와이셔츠, 남방, 단체복일절

H.P. 010-6677-1140

월성라사

고급양복전문

월성라사

1급 기능사 자격 보유

오랜 전통으로 품위있는 정장을 맞춰드립니다.

합리적인 가격, 최고의 품질을 제공해드립니다.

신사복, 와이셔츠, 남방, 단체복 일절

1담동

서문시장

서문사거리

서사라

제주은행

삼성스포츠

월성라사

YMCA

관덕정

중앙로

대표 강상빈

제주시 관덕로 10(삼도2동)

Tel. 723-1140 H.P. 010-6677-1140

반찬·도시락 전문점

제주밥상

원하시는 가격에 맞춰서 성심성의껏 만들어 드립니다.

Tel. 064)755-6308, 010-6652-6798

1인 월 반찬 5,000원

(2인 이상 주문 가능)

맞춤 도시락 1인

5,000원 ~ 10,000원

화·포장 배달 전문

· 제주지역 당일주문 당일배송

· 서귀포지역 및 시외지역 당일주문 익일배송

활어 해산물

· 광우참 · 활고등 · 자연산활어

· 어럭 · 돔 · 등어

· 문멍 · 소전 · 개

· 어게 · 방 · 각종해산물

· 생연어

제주도전역 매일납품 가능

판매장에서 도매가로 화와 해산물을 구입후 식당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판매장

용담1동 387(용두암 수산센터)

식당

용담1동 386(월척수산)